



〈여민지〉

여민지+지소연 투톱 스트라이커 뜬다면...

# 2015 성인월드컵 기대된다

2012 런던 올림픽과 2015 여자월드컵은 '지소연·여민지' 투톱 스트라이커가 책임진다.

지난 26일 최태주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U-17)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일본과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축구팬들의 기대는 2년 뒤 런던 올림픽과 2015년 성인 여자 월드컵(개최지 미정)까지 쏠리고 있다.

현재 U-20, U-17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하는 2012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트라이커 지소연(한양여대)을 비롯해 미드필더 김나래, 김혜리, 이현영(이상 여주대), 골키퍼 문소리(울산과 학대) 등 U-20월드컵 3위 주역들은 2012 런던 올림픽과 2015년 월드컵에서는 성인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할 수 있다.

세계무대 통한다 자신감

여자축구 황금시대 예고

축구팬들 '즐거움' 상상

U-17월드컵 우승을 이끌고 득점왕, MVP까지 쓸어 담은 여민지(17·함안대산고)와 김아름(17·포항여전자고), 이금민(16·현대정고) 역시 5년 뒤엔 20대 초반으로 한창 기량이 물이 오르기 시작할 시기다.

다른 종목에서 '방황'을 거치며 황무지를 개척해온 1세대 선배들과 달리 여민지 때부터 집중 투자를 통해 '순수 축구인'으로 길러지고 큰 무대에서 국제경험까지 쌓은 이들 황금 세대가 뭉치면 성인무대에서도 충분히 정상을 두드러 볼 수 있다는 평이다.

물론 청소년기 실력을 20대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당장 어린 선수들이 실력을 펼칠만한 무대가 없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실업팀 7개를 비롯해 초등학교 18개 팀, 중학교 17개 팀, 고등학교 16개 팀, 대학교 6개 팀, 유소년 클럽 1개 팀 등 모두 65개 팀에 그치고 있다.

여민지 때부터 운동에 집중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이나 미국 등 여자 축구 선진국 선수들은 청소년기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다 진로가 정해지는 20대 이후 기량이 절정에 이른다는데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박기봉 여주대 여자축구팀 감독은 "이번 U-20과 U-17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연달아 정상을 두드리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수확"이라며 "실질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선수들이 유럽과 미국 등 큰 무대를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경험을 쌓으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소연〉

## 여민지 '최고의 골' 후보에

### U-17월드컵 8강 나이지리아전 골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한국축구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우승을 이끌며 골든볼(최우수선수상), 골든부트(득점왕)까지 거머쥔 여민지(17·함안대산고)가 '대회 최고의 골' 후보로도 올랐다. FIFA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막을 내린 U-17 여자 월드컵에서 최고의 골 후보 10개를 뽑아 발표했다.

여민지는 혼자 4골을 몰아넣은 지난 17일 나이지리아와 8강(6-5 승)에서 후반 44분 기록한 득점으로 후보에 올랐다.

당시 3-3으로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센터서클에서 넘어온 공을 받은 여민지는 골 지역 왼쪽으로 몰고 가 상대 골키퍼까지 제치고 나서 수비수 한 명이 대신 지켜선 나이지리아 골문에 차분하게 오른발로 차 넣었다.

### 조광래호 내달 12일 한·일전

### 박지성 등 해외파 11명 호출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를 일본과 친선경기를 앞두고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파 11명을 호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7일 "조광래 감독이 한·일 친선경기를 위해 호출을 위한 해외파 11명의 소속 구단에 소집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표팀 주장 박지성을 비롯해 이창용(불탄), 박주영(AS모나코), 차두리, 기성용(이상 셀틱), 이정수(알사드), 조용형(알 라얀), 박태환(교토), 조영철(니가타), 김영권(도쿄) 등이 조광래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일본과 대결에 나서게 됐다.

해외파 11명은 조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조 감독은 국가대표 사령탑 데뷔전이었던 지난달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에는 12명, 지난 7일 치르던 이란과 평가전에는 14명의 해외파를 불렀다.



## 하늘 높이 날아라

2010 아시아 산악자전거(MTB)선수권대회가 9월 26~10월1일 충북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 산악자전거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27일 오후 BMX 한국대표 선수가 경기장에서 자전거를 타며 몸을 풀고 있다.

## 퓨릭, 1m 퍼팅 1135만달러 '돈방석'

### PGA 왕중왕전 챔피언 최경주 공동 7위

'8자 스윙' 집 퓨릭(미국)이 2010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승자가 됐다. 퓨릭은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마지막 대회 투어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함께 8언더파 272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페덱스컵 포인트 2500점을 보낸 퓨릭은 정규시즌과 네차례 플레이오프 대회에

서 가장 많은 점수를 쌓아 우승 상금 135만달러와 함께 1000만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차지했다.

최경주(40)는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날 2타를 줄여 함께 2언더파 278타로 어니 엘스와 공동 7위에 올랐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마지막 라운드에서 퓨릭은 15번홀(파5)까지 2타를 줄이며 쉽게 우승컵을 차지하는 듯 했지만 16번홀과 17번홀(이상 파4)에서 잇따라 보기를 적어내며 크게 흔들렸다.

루크 도널드(잉글랜드)가 7언더파 273타를 치며 2위로 먼저 경기를 끝내 퓨릭은 자치하면 연장전으로



### 최경주, 내달 4일 카브레라와 스킨스게임

한국골프의 간판 최경주(40)와 아르헨티나의 골프 영웅 앙헬 카브레라가 10월4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열리는 신한은행 희망나눔 스킨스게임에 참가한다.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9월30일~10월3일)가 끝난 뒤 열리는 이번 대회는 1억50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으며 상금 전액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함께 일하는 재단, 굿네이버스를 통해 사회공헌 기금으로 전달된다. 스킨스게임에는 최경주, 카브레라와 함께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하는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김경태(24),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홍란(24), 김하늘(22)도 출전한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무인텔**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